

# 지난해 11월 경상흑자 7개월來 '최소'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81개월 연속 흑자를 냈으나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글로벌 교역량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해진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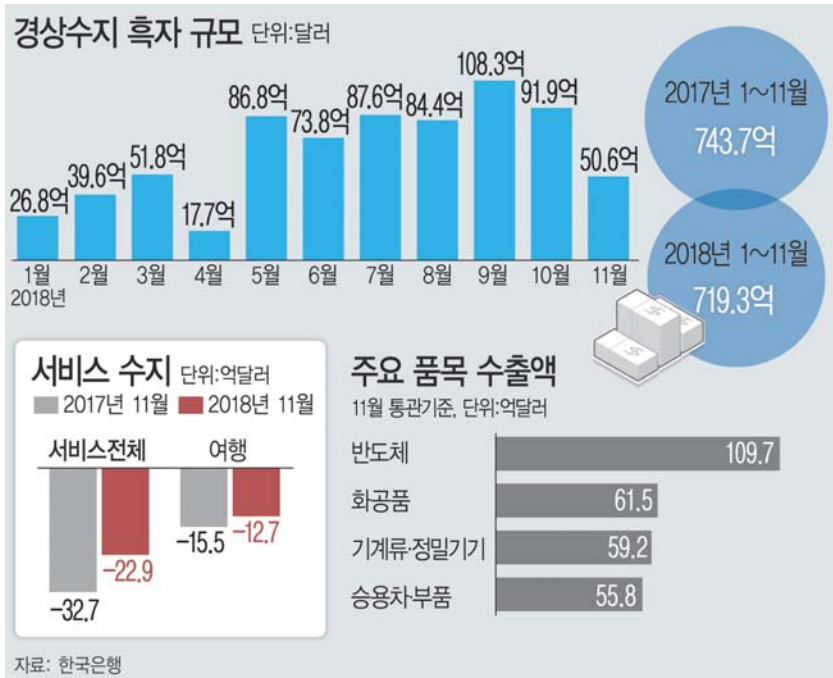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000만달러로 사상 가장 기간인 지난 2012년 3월 이후 81개월째 흑자를 지속했다. 1년 전 같은달 수준인 74억3000만달러에 비해 큰 폭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4월(17억7000만달러)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것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수출은 517억2000만달러로 1년 전 수준(514억8000만달러)에 비해 2억4000만달러(0.5%) 증가에 그쳤다. 추석 연휴 이후 10월 수출이 28.8% 뛰어 572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품목의 단가와 세계 교역량이 둔화된 영향"이라며 "간간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3% 증가한 43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상품수지는 79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동기

81개월 연속 흑자 기록……수출증가세 둔화 영향  
흑자 규모 5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축소  
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관광객 증가 영향



항목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서비스전체	-22.9	-12.7
여행	-15.5	-12.7

품목	수출액
반도체	109.7
항공품	61.5
기계류정밀기기	59.2
승용차부품	55.8

수준(114억6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내려앉았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월(59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2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32억7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나아졌다. 무엇보다 여

행수지 적자가 개선된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여행수지는 12억7000만달러 적자로 1년 전 같은달(15억5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축소됐다. 이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내를 찾은 입국자수는 138만명으로 전년동

월대비 23.5% 증가했다. 여행수입은 1년 전 같은달(11억3000만달러) 수준보다 확대된 1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수는 229만6000명으로 그간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쳤고 여행지급도 같은기간 26억7000만달러에서 25억4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아울러 컨테이너 운임 상승으로 해상운송수지 적자가 1억8000만달러로 개선되고 입국자수 증가로 항공운송수지가 8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선 점도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영향을 줬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1억9000만달러 빠져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된 영향으로 감소폭은 전년(4억8000만달러)에 비해 축소됐다.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채권 거래량이 늘어 2억5000만달러 증가로 전환했다. 주식투자는 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48억4000만달러 늘어 지난 2015년 9월 이후 39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에도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투자가 27억달러 늘었고, 채권투자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 완화 기대 등으로 21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뉴스스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지점 영업장에 정상영업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총파업' KB국민은행 영업점 가보니... 10곳 중 6곳 '업무 차질'

KB국민은행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8일 오전 현재 영업점 10곳 중 6곳은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전국 1058개 모든 영업점을 연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거점점포로 지정된 411개점(39%)에서만 정상적인 창구업무가 가능하고 나머지 647개점(61%)에서는 단순 입출금 업무 등 일부 업무만 처리만 가능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거점점포와 비거점점포 상황은 편이하게 달랐다.

총파업이 시작된 오전 9시20분 송파구의 한 거점점포 막 개장한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창구에는 여성 고객 2명이 앉아 상담을 받고 있었다.

지점장 A씨는 "오늘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다"며 "다른 점포 지원 없이 우리 점포 출근 인원이지만 문제없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점포에 출근한 직원은 지점장을 포함해 전체 10명 중 6명이다. 결국자 4명 중 3명은 총파업을, 1명은 휴가를 갔다.

A씨는 "점심시간에는 좀 붐빌 수 있겠지만 오늘 방문한 고객 10명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직원 B씨는 "저도 조합원인지라 전날 밤 전야제에 참석했지만 영업점 문을 닫을 수는 없어 출근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거점점포의 상황은 편이하게 달랐다. 기자가 방문한 비거점점포는 입출금기기(ATM)의 확장판 수준에 불과한 '비비상태'였다.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고객이 속출했다.

인근의 한 비거점점포 출입문에는 총파업 안내장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오전9시40분께 한 고객은 안내 문구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

점포 안에 들어서자 청원경찰이 먼저 다가와 '오늘은 입출금 업무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전10시께 영업점에 들어선 한 중년 남성은 안내를 듣고 '그럼 언제 정상화가 되냐'고 묻고는 발을 돌렸다. 오전10시11분께에도 20대 남성 한명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했다.

고객 C씨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짜증난다"며 "영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문자로 안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창구는 7개 중 4개 상담원 지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창구 바로 위 모니터에는 '부재중'이라는 글씨가 박혀있었다.

내부에 놓인 커다란 모니터에는 사과 문구가 띄워졌다. '고객님의 질책을 겸허히 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에는 '총파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고객님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 뱅킹이나 ATM 등 비대면 채널은 정상운영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금융거래수수료도 면제한다. 가계나 기업의 기한연장대출원리금 등은 당일 파업으로 인해 정상처리 되지 않യാ 연체 이자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객 불편은 매일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한 3차 2월26일~28일, 4차 3월21일~22일, 5차 3월27일~29일 총파업이 차례로 예정되었다.

## 준폐 기로 놓인 서울 '전남농수축산물유통센터', 부동산 상승에 재미 톡톡

매출 부진으로 준폐기로 놓인 서울 소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남도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센터를 폐쇄하기보다는 인구 유동이 많은 위치로 이전해 제2의 활성화를 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는 건축면적 1682㎡, 연면적 1만2627㎡,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로 총 사업비 217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6월 개장했다.

전남도는 부지매입비 103억원을 민간업자는 건축비 114억원을 들었다. 총 217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BTO, 즉 민자유치 방식으로 토

지와 건물은 전남도의 소유이고, 민간업자는 건축비를 댄 만큼 2030년까지 운영권을 부여했다.

6년여가 지난 현재 유통센터 건물은 부동산 가치가 300억원 정도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200억원대

전남도, 100억 투자해 6년만에 시세 300억 추정  
"일대 재건축 완료되면 시세 500억 정도 될 듯"  
유동인구 많은 지역 옮겨 활성화 도모해야 주장도

날릴 판'이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전남도 입장에서 100여원을 투자해 6년만에 200여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센터 주변이 재건축이 진행중이어서 2023년쯤 되면 부동

산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이렇다보니 센터 건립을 추진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별명을 '마이너스 손'에서 '미이다스 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남 개포동 일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센터 시세가 5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고 전했다.

다만 친환경 판매장만 죽을 쓰

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 논의가 있는 센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이 많이 찾고 있는 건물 지하 1층 대형마트 한쪽에 유통센터를 이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폐쇄보다는 축소를 하더라도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판매장에서 낸 매출액은 2012년 4억2000만원, 2013년 1500만원, 2014년 1900만원, 2015년 1억6000만원, 2016년 8700만원, 2017년 1400만원 등 크게 저조한 실정이라서 폐쇄 기로에 놓였다.

김정환 기자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